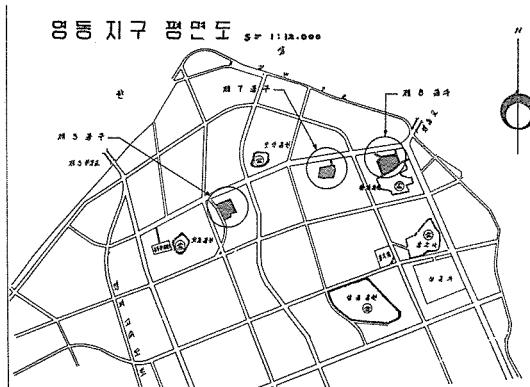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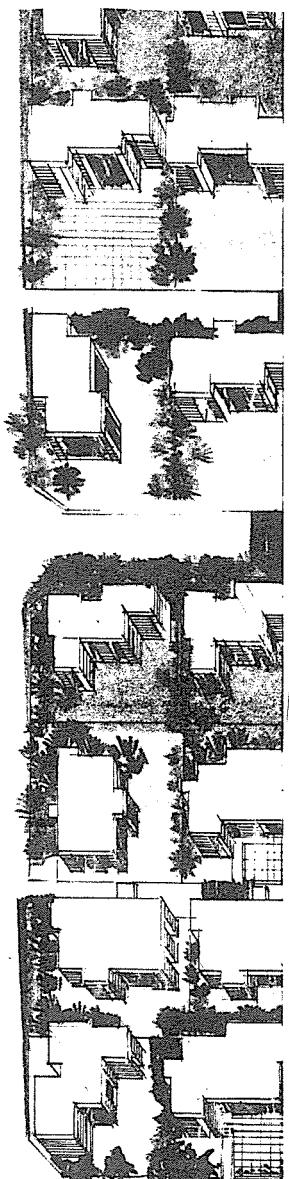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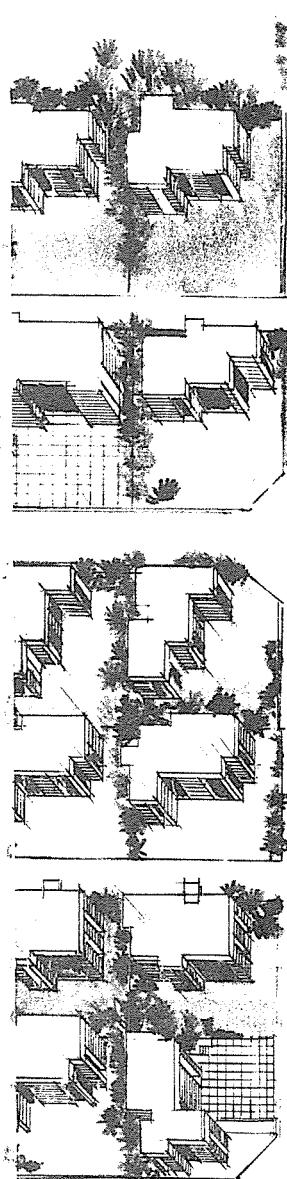


住宅団地 設計計画 -1

(永東地区 開発計画에 참여하고서)

吳 忠 煥



PLOT PLAN VIEW
3rd ZONING

- I. 計画上の 問題点
- II. 環境調査 및 既存計画 検討
- III. 団地와 庭園 및 造園施設
- IV. 住宅의 基本形態와 面積配分
- V. 構成과 質感과 色彩
- V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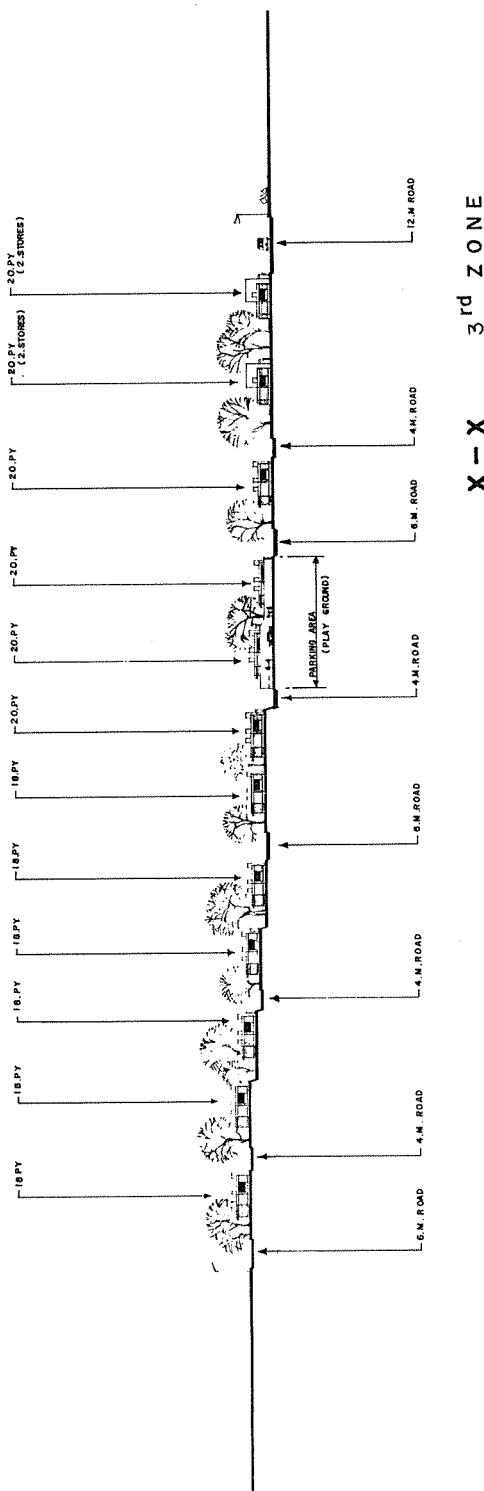
I. 計劃上の問題点

이번 永東地区開発計劃의 일환으로 착공된 서울시 住宅建設事業(단독주택)에 대하여 참여한 본인은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몇자 적으려고 한다.

永東地区는 서울시가 새로운 시가지 형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는 하나 너무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요하는 곳이기도 한데 모든 주위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간의 절약성 때문에 병행추진 하는 곳으로 일종의 거점 개발의 시도로 채택된 것이다. 하나의 邑이나 시가지가 형성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요소는 너무나 복잡하고 多技能한 여건을 요구하는 것이라 그 문제점 또한 크기는 하나 주어진 여건에서 앞으로의 다른 計劃과 큰 차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기도 할 곳이다. 또한 이러한 地域開発計劃은 한국 전체의 이니시에티브를 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vision)에 대하여 가변성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하나의 인간들이 도시를 형성 할 때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어 群集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Community)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고 구도시인 中心가로 부터의 공급은 사실상 불편을 느끼게 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集中的인 投資로 계획의 차질을 주지 않을 때 해결되리라 믿는다. GNP의 상승과 더불어 마이카(my car)의 시기가 오면 社會經濟는 소비(consume)의 經濟로 돌입하게 하는데 앞으로의 이러한 전망(vision)은 CBD(중앙업무지구)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것이고 団地의 일부에 이러한 福祉施設(Community)이 형성되면 이 단지의一次的인 계획이 実現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되겠다.

在來의 도시(구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로 전출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열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方法은 거점개발의 형태성을 띠고 주거의 이동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住宅難의 해소점을 둡기는 하나 사실상 어려운 방법의 하나이고 이 부분의 Community는 거주자에 의하여 建設될 공산도 크며 이



기간 동안의 모든 공급은 구도시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交通手段의 최대의 협조와 긴밀한 產業의 협조가 이루워져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現在의 밀도와 비교하면 큰 經濟的인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投資는 vision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投資라고 생각된다. 단 이러한 現況을 가장 적절하고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포괄성 있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술적인 방법을 더욱더 강구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우리는 흔히 先進國에서 새로운 도시 (new town)를 세워 실패하는 경우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들의 현실이 미래의 후손에게 어떠한 상처를 남겨서는 안되리라 믿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지금의 投資에 比해 보면 더욱 큰 經濟에 직접 또는 간접의 피해를 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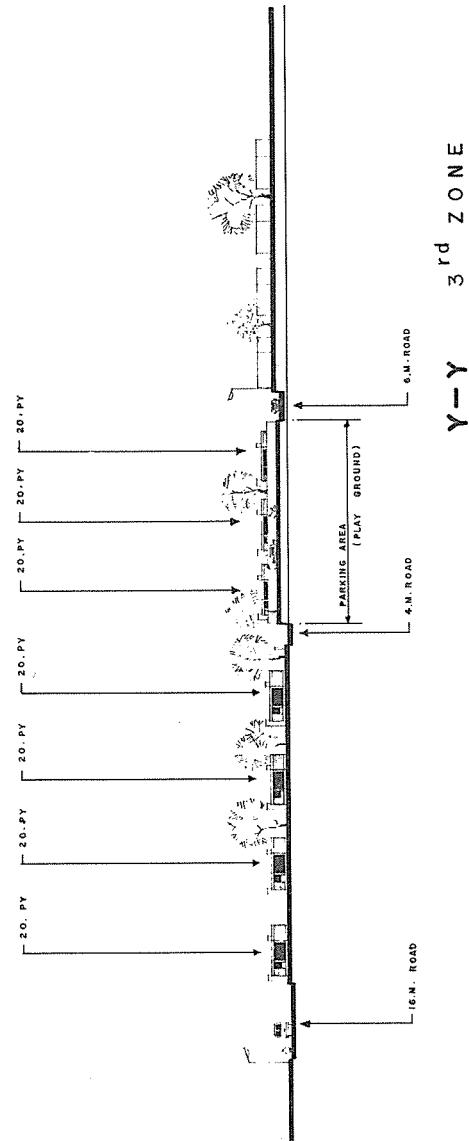
우리는 흔히 現代都市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든 없든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 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도시나 團地에서의 문제에 가변성을 주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시대는 변천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적응하며 변천한다. 이러한 것들은 意識的이든 無意識의든 간에 바뀌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固定되어 버린 도시의 형태성 속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형식의 都市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순수운 것만은 아니고 보면 social complex로 바뀌기 쉽고 혹은 slum 지구를 형성하게 하는데 주축의役割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것의 結論은 人間을 위한 都市가 결국은 都市를 위한 人間化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要素들은 價値性마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내세운 永東地域 住宅建立 総合計画의 목적을 보면,

1. 시민의 住宅難 완화.
2. 人口分散 및 영동지역 거점개발.
3. 민간 주택 건립유발.
4. 주택의 標準化 및 量產화 구현으로 되어 있다.



II. 環境調査 및 既存計画検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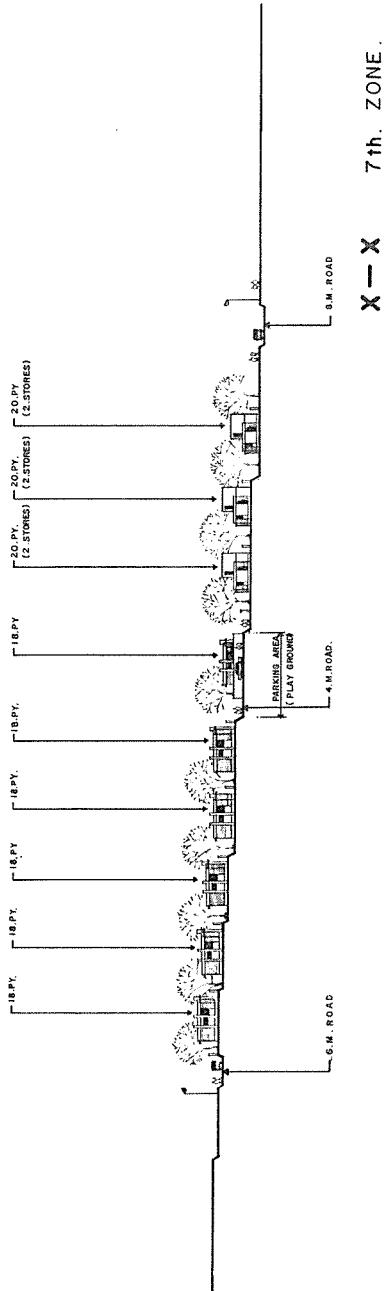
도표에 明示되어 있듯이 이 团地의 中央部를 50 m 폭의 도로가 net type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 도로에 경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제3한강교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永東橋가 금년 말 준공을 볼 예정으로 되어 있다.

본인이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团地의 거점 부분에 관한 것으로 논하기로 하겠다.

먼저, 3团地의 경우, 학동공원과 도산공원 中心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7团地의 경우는 도산공원과 청담공원 中心部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의 환경오염 같은 주로 해결하는 기법을 볼 때 2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로 기설되어 있는 도시는 人工的인 힘을 이용한 해결로서 막대한 경비를 요하며 필요시에는 어떠한 구획(zone)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方法의 한계도 우리는 정확하게 내 세울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 큰 피해만을 덜자는 方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근본적인 해결은 실제로 곤란한 것이다.

또 한 方法으로서 自然的인 方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 規準을 세우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러한 規準은 그 당시의 여건분석과 投資할 수 있는 허용선을 고려하여 정하고 적절한 分散 및 分配로서 최대로 막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자에 비해 적은 投資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전문적인 분석이 가해져야 되겠다.

이러한 여건의 3团地 및 7团地의 여건은 어느정도 양호하기는 하나 이 단지의 형태가 이미 自然을 人工的으로 거의 계획진행되어 가고 있으므로 문제의 초점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적은 团地內의 새로운 요소를 일으킬 수 있게 하고 있다. 흔히 1block에 놓여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의하여 기획되고 이것이 하나의 모듈(module)의 役割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거점개발 기법에서의 문제는 그러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방법은 주위의 여건은 적은 군소의 투자가로 하여금 확장하는 기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点개발기법은 先開發 기법으로 변행되기 쉬우며 이러한 것은 군소의 投資家로 형성되기 쉬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団地와 庭園 및 造園施設

일반적으로 단지와 庭園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단지의 형태는 개개인의 요구성에서 형성되어 가기도 하고 혹은 주어진 여건에서 개개인의 요구성을合理化시키기도 하며 필요시에는 庭園을 위한 团地의 分配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团地들의 여건은 이미 永東地区가 net type의 형태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의 형태는 갖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었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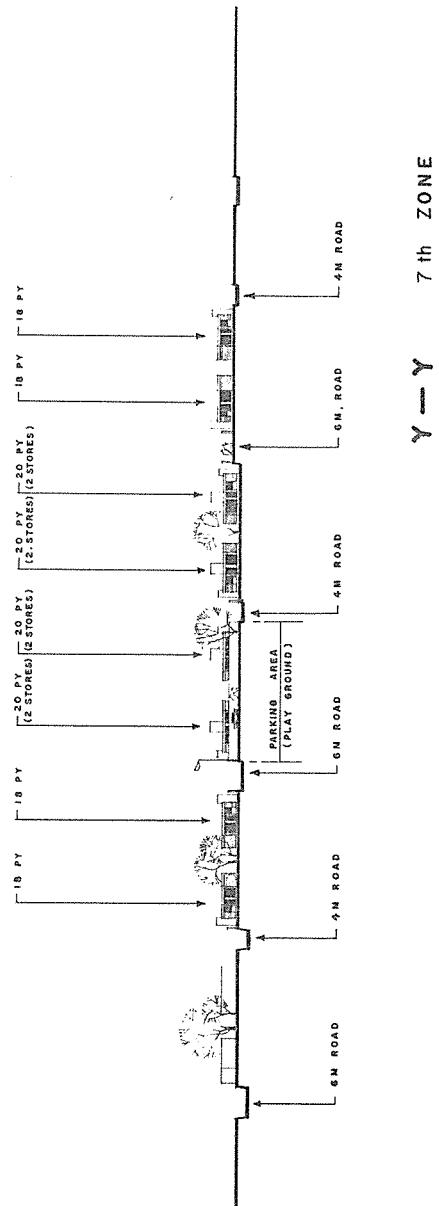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net works의 patterns을 가하는 方法은 기존형태에 技能과 心理的인 요소를 주고 일관성 (sequence) 있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러한 단지의 대각선 (triangular grids produces)을 형성하여 团地內의 혼잡성을 피하게 하는 方法이 있겠다.

보통의 경우 net type의 주 진입 (main approach access)은 공공시설이 있는 곳이나 전체 团地의 主道路로부터 흡수되기 때문에 적은 团地의 인입 동선이 밀집되며 첨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주위에 위치한 곳은 공공의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一方通行 (one-way)을 행한다든가 그렇치 못할 경우 团地内 혹은 外에 loop system의 경우를 이용하게 되며 이러한 方法은 住居團地의 공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장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요소에 sequence를 이용한 visual form도 생각할 수 있게하고 axis를 이용하게도 하며 필요시에는 공간의 texture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간의 texture의 한 要素로서 정원을 들 수 있고 建物들의 형태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적절한 대로를 요구하게 된다.

흔히 우리 주위의 정원은 일개인의 기분 충족을 시키기 위한 것들이며 하나의 사치성마져 노출시키



기가 일수인데 적어도 이러한 요소는 단지 기법에
서는 배제되어야 되리라 믿는다.

좀더 巨視的인 유대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
구를 가하고 이 길에 종사하는 누군가가 앞서 해결
하고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하므로 理解와 協調가
필요하여지는 것이다. 좀더 세분해서 예를 들자면
團地内外에 수목의 종류 혹은 크기 혹은 담장들의
형태이며 건물과의 유대들이겠다.

종합적인 이러한 여건에 우리는 造園을 다듬어 들
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의 조원의 성격은 단지 비중
을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역으로 비중
도를 증가시켜 相反된 이론으로合理화하는 과정도
생각할 수는 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서울市의 경우 制限된 予算은 공감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에一次的으로 이러한 계획하
에 团地內의 수용자에게 vision을 주고 지도하는 방
법이며 이러한 方法이 상기에 기술한것과 같이 종
합적인 형태성을 이루어 놓았을 때合理性을 떤 团
지가 되리라 믿는다.

일반적으로 团地와 庭園과 造園은 일관성은 있으
나 그것이 같은 기능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들이 요구
하는 성격 및 기능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요구하는 생태도 또한 다른 차원
을 갖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리라 보고 구획
하는 方法도 여러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하겠다.

흔히 現代人들은 개방된 어떠한 공간에서 자기들
의 비밀된 空間을 구축하기를 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空間의相通된 조건을 요구하고 또한
環境의 여건을 최대로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
러가지 형태로 분류처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
은一次的으로 造園과 室內空間에서 부터 시작되
고 혹은 진입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주로 活動의
상태에서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혹은 연령별이나
知的水準에서도 크게 작용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요소들은 造園의 性格을 左右하는 큰 요

소로서 決定的인 役割을 담당하게 되며 이것의 요
소를 合理性 있는 구획을 주었을 때 가장 좋은 분
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들의 空間을 구성하기 위한
造園의 일부는 어른들의 侵害을 받지 말아야하고 그
들만의 조건을 흡수할 수 있는 方法으로 구성되어
야 하는데 크게 分類하면 공통의 요구조건은 团地
의 일부에 정리할 수 있겠으나 각자들의 요구 조건
은 그때그때 分散된 조건을 요구하게 하므로 第2
의 整理가 필요하여지겠다. 이러한 구획에서 일부
를 자기의 부모로부터 위촉받게 되고 이러한 空間
은 어린이들의 健康과 自然의 생태를 몸에 익히게
하며 또한 구성원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
兒童心理를 配分하게 되고 특히 自然의in 재료들의
質感(texture)과 색상(color)들의 형태는 造園의 構
成要素에 있어서 그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室
內空間의 變化를 주기도하는 方法으로 처리되곤
한다.

《다음 호에 계속》

(会員・半島都市技術公団)